

스포츠 꿈나무들의 큰 잔치 '활짝'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31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광주 1천25명(선수 734명, 임원291명), 전남 1천162명(선수 817명, 임원 345명)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상 최다인 1만6천81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32개 종목(정식 30개, 시범 2개)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광주소년체전 오늘 개막... 열전 4일
선수단 1만6천여명 사상 최대 규모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광주는 메달밭인 레슬링과 양궁의 전력향상과 개최지 이점을 살려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남은 기록경기와 초등학교부의 경기력 향상으로 전년보다 금메달 5개 이상을 더 획득해 한 자릿수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30일 치러진 사전경기에서 광주는 축구 남중 북성중이 경기 백압중을 2-1로 제압하고 서전을 장식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전남도는 축구 여중 광영중이 충북 예성

여중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5-4로 제압했고, 농구 여중 영광중은 경기 청솔중을 56-45로 누르고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하지만 농구 남초 쌍봉초와 여중 영광중초는 패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번 소년체전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광장(북문)에서 체전기간동안 이벤트 상설무대를 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B-boy, 댄스, 태권무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펼친다.

또 소년체전 스포츠 백일장 및 사생대회도 함께 열려 종합문화 축제로 치러지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인경 '버디 쇼'

7언더파...카리 웹과 공동 선두

LPGA 킷리뷰트 1R

한국 자매들이 김인경(20·하나금융)을 앞세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인경은 30일(한국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리버타운 골프장(파 72·6천459야드)에서 열린 킷리뷰트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쓸어 담아 7언더파 65타로 카리 웹(호주)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2006년 12월 LPGA 투어 웰리파인스스에서 공동 수석을 한 김인경은 2007년 6월 웨그먼스LPGA 대회에서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최종 라운드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을 해 주목을 받았던 선수.

김인경은 대회 첫날 15차례나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 퍼트 수도 26개로 줄이는 절정의 샷 감각을 보여주며 한국 자매의 우승 가뭄을 해소해 줄 희망으로 떠올랐다. 다른 한국자매들도 상위권에 포진하며 힘을 보탤다.

베테랑 김미현(31·KTF)이 5언더파 67타를 때려 내며 박인비(21), 최혜정(24·카스코)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라 무릎 재



김인경이 3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리버타운 골프장에서 열린 킷리뷰트 1라운드 16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합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렸다. 또 김승희(20·힐라코리아), 이선화(22·CJ), 제인 박(21)도 4언더파 68타로 공동 11위에 자리해 선두를 3타차로 뒤쫓았다.

한편 이 대회 주최자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버디 5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2개에다 5번홀(파4)에서 3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븐파 72타, 공동 60위로 밀렸다.

신지에 "타이틀 방어 가능"

1언더...선두 김민선에 3타차

KLPGA 서경오픈 1R

김민선(19·이동수골프)이 신인왕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또 한명의 특급 신인 탄생을 예고했다.

김민선은 30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동코스(파72·6천608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힐스테이트 서경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 하나 없이 버디만 4개를 골라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쳐 4언더파 68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올해 프로에 입문한 김민선은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려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낼 기회를 맞았다. 페어웨이가 좁은 코스 특성을 감안해 멀리 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치는데 중점을

뒀다는 김민선은 14번홀(파4)에서는 그린을 놓치고도 10m 칩샷이 버디가 되는 행운도 누렸다.

그러나 김민선이 최종 라운드까지 선두를 지킬지는 미지수.

시즌 첫 우승에 목마른 안선주(21·하이마트)와 문수영(24)을 비롯해 오안나(19), 김빛나(19),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박선영(17·사파고) 등 5명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2위 그룹에 포진했다.

더구나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신지에(20·하이마트)와 신인왕 레이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소연(18·하이마트), 휘닉스 파크클래식 우승자 김하늘(20·코오롱) 등 4명이 1언더파 71타로 공동7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지에의 페어웨이 안착률이 42%에 그쳤고 그린 적중률 역시 55.5%에 머무르는 등 샷 난조 속에서도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 3개를 걸며 타이틀 방어에 녹색 신호등을 켰다.

위성미 유럽투어 4언더 '여유있는 미소'

독일여자오픈 1R

끝 모를 슬럼프에 허덕이던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위)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무대에서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위성미는 29일 독일 뮌헨의 구트호이제른골프장(파72·6천204야드)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독일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보기가 하나도 없었고 버디만 4개를 골라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 1번홀(파4·307야드), 4번홀(파3·164야드), 그리고 5번홀(파5·508야드) 등 수월

한 홀에서 버디 3개를 뽑아낸 위성미는 이후 지루한 파 행진을 밟아다 난이도 높은 17번홀(파4·389)에서 버디를 보냈다.

그러나 위성미의 재기를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니나 라이스(스웨덴)가 8언더파 64타를 뽑아냈고 66타를 친 로라 페어클래프(잉글랜드), 67타를 때린 나탈리 클레어 부스(잉글랜드)가 뒤를 이었고 68타를 친 선수도 8명에 이를만큼 코스가 쉬웠다.

특히 위성미는 지난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필즈오픈에서도 첫날은 3언더파 69타로 훌륭한 성적을 냈지만 이후 73타, 78타로 무너져 골짜리 밀러전력이 있다.

최경주 4오버 78위 부진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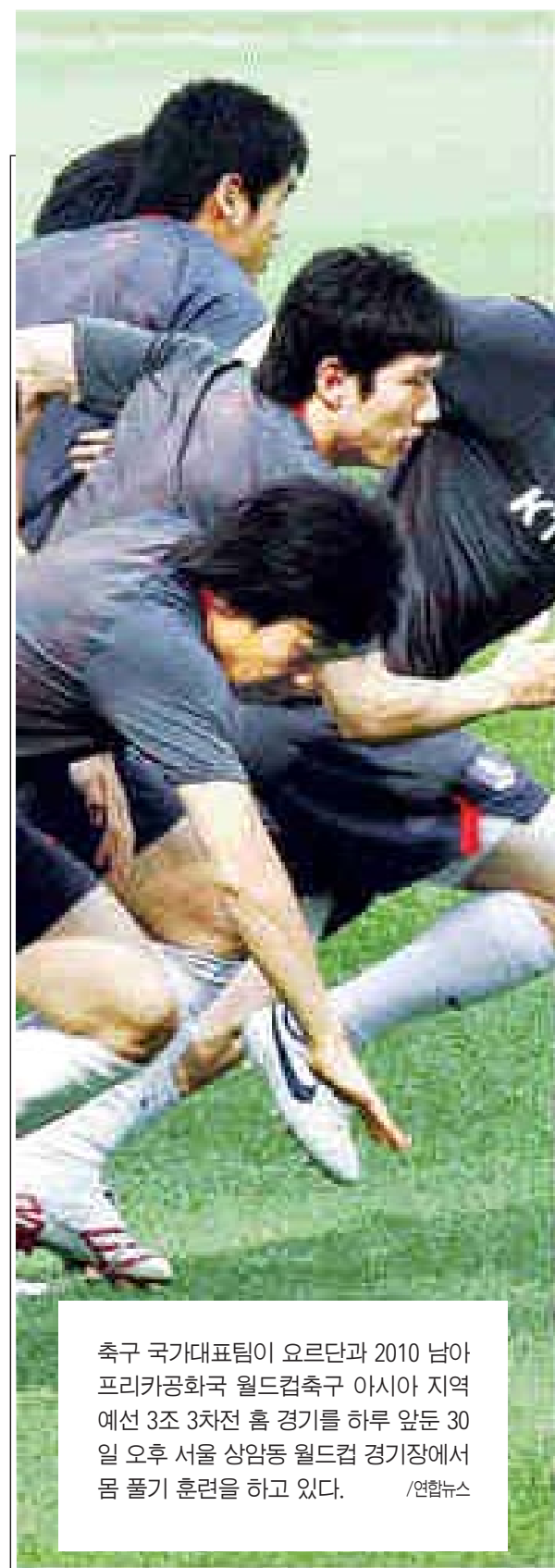
타이틀 방어에 나선 한국프로골프 1관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첫날을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쳤다.

최경주는 30일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뷰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7천36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를 잡는데 그치고 보기 6개를 쏟아내 4오버 파 76타로 공동 78위까지 밀렸다.

작년 대회 우승자 최경주는 7언더파 65타를 친 단독 선두 매튜 고건(호주)에 11타나 뒤져 완전자이클리어를 치르려 했다.

허정무로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원톱' 박주영 골문 열이라



박지성·이청용 등

최강 공격라인 포진

오랜 만에 노장의 경험과 젊은 피의 패기가 제대로 조화를 이룬 최강의 공격라인이 발진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1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동의 북병 요르단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조 3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3차 예선에서 1승1무(승점4·골득실+4)를 기록해 북한(골득실+1)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불안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만큼 요르단전에서 승리해 조 1위 자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요르단과 홈 경기를 마치면 지옥의 원정 2연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홈에서 승점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

태극전사들이 상대할 요르단(1승1패·승점3)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4위로 한국(50위)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참 뒤지고 있지만 역습이 좋고 중거리슛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만만치 않게 상대할 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요르단의 공격 선봉은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교체돼 골을 터트린 타에르 바와브를 원톱으로 4명의 선수가 중원을 책임지는 5-4-1 전술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은 요르단과 홈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파 7명을 총출동시키고, K-리그에서 내로라 하는 스타들을 전부 소집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표팀은 최근 동아시아대회를 포함해 A매치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터라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요르단전 승리가 절실하다.



을 배치할 전망이다. 박주영의 뒤를 받치면서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은 '돌아온 스타' 안정환(부산)의 몫. 박지성과 이청용이 좌우에서 흔들면, 박주영과 안정환이 파고 들어 골을 완성한다는 공식이다.

허 감독은 박지성에게 왼쪽 공격수를 맡겼지만 원톱 박주영과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 유기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오른쪽 날개 설기현(풀럼)은 경기 감각이 떨어져 이청용의 백업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박지성의 체력이 떨어질 경우 '토종 골잡이' 이근호(대구)가 빈 자리를 채운다.

대표팀의 허리는 수원 삼성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김남일(빛설 고베)-조원희(수원) 조가 '더블 볼탄데'로 나서 요르단과의 역습을 1차적으로 차단한다.

하지만 허 감독의 고민은 포백(4-back)의 구성이다. 왼쪽 풀백 이영표(토트넘)가 고양 국민은행과 평가전에서 기대 이하 활약을 보이면서 김동진(제니트)이 출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런 부상에 발목을 잡혀 수비라인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1일(토)
▲2008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2R(04 : 00·SBS 스포츠·SBS골프)
▲2008 LPGA 킷리뷰트 2R(05 : 00·SBS골프)
▲2008 베이징올림픽 세계남자배구 최종예선(대한민국 : 아르헨티나)(13 : 00·KBS N SPORTS)
▲2008 한국여자 프로골프 힐스테이트 서경오픈 2R(14 : 00·XSPORTS)
▲SBS 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나 오픈 3R(14 : 10·SBS골프)
▲ITTF 탁구 코리아오픈 남자단식 16강 여자단식 8강(15 : 00·SBS스포츠)
▲2008 삼성 파브 프로야구(KIA : 기아)(16 : 30·KBS N SPORTS)(롯데 : 우리)(16 : 40·SBS스포츠)(삼성 : SK)(16 : 50·XSPORTS)(한화 : LG)(17 : 00·MBC ESPN)
▲2010 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예선(한국 : 요르단)(19 : 45·KBS2)



환상의 마무연기

러시아의 케세니아 아피나세바가 30일 러시아에서 열린 예술세계제조컵 마루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